

총선으로 본 지역주의

- 영동·무주·김천 지역을 중심으로 -

김 재 한*

Political Regionalism in Korean Congressional Elections 1988~2004: A case study with provincial border regions Yeongdong, Muju and Kimcheon

Kim, Jaihan*

요약: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소선거구제로의 변화로 또한 지역기반 정당의 출현으로 13대 총선 이후 전국적인 투표 행태가 종래 여촌야도에서 지역주의적인 양상으로 바뀌었다. 충북·전북·경북의 접경지역인 영동군, 무주군, 김천시를 대상으로 지역적 정당정체성의 변화를 검토하고, 각 후보자 선택 기준의 중요도를 비교하여 투표 행태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시군 단위로 볼 때, 타도와외 문화적 친화성으로 인해 영동군은 전면적으로 무주군은 부분적으로 지역당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는 반면, 김천시는 지역당에 대한 지지가 확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 단위로 본 이웃효과는 3 시군 모두에서 부분적으로만 확인되었다. 후보자의 정치적, 사회적 특성이 유권자의 투표행위라 할 수 있는 득표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선형근사식을 통해 살펴 본 결과, 여러 설문조사와는 다르게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나 출신 지역 등 지역적인 선택 기준을 중시하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을 기점으로 지역정당이 쇠퇴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지역주의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될지 주목된다.

주요어: 정치적 지역주의, 지역정당, 접경지역, 이웃효과, 후보자 선택 기준

Abstract: After the democratization process since 1988, the national scale voting behavior in congressional elections has changed from a rural-government party and urban-opposite party connection to a political regionalism oriented pattern. In this context, the case study with provincial border regions aims to investigate possible party identification change of the region, and to find a relationship between polling score ratio and socio-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candidates. As a result, Yeongdong shows a strong negation to the presumed Chungcheong local party and shows a continuous party identification with the Kyungsang local party. Muju reveals a more or less weakened identification with the Jeolla local party, on the contrary, Kimcheon shows a unchanged strong identification with the Kyungsang local party. The regional neighborhood effect was verified quite partly between the subdivision districts of the border regions. With a application of linear fitting method, it is certified that voters have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the belonging party, native place, as well as political career of the candidates as a voting criterion.

Key Words: political regionalism, local parties, border region, neighborhood effect, voting criteria

1. 머리말

1972년부터 1984년까지는 총선에서 여촌야도 현상이 뚜렷했는데 그 이유는 이 시기에 중선거구제 실시와 아울러 농촌선거구가 선거구 총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8년 13대 이후 인구수의 도농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통합 선거구를 기반으로 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함으로써 여촌야도 현상은 소멸되고¹⁾ 특정 지역에서 특정정당이 의석을 싹쓸이하는 지역주의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88년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과거 군사독재에 저항했던 유력한 야당 정치인의 정치활동이 재개된 이후 3김간에 권력경쟁을 벌이

게 되고 아이러니하게도 출신 지역이 달라 대신이나 총선에서 연고지역을 중심으로 지지기반이 형성된데 기인한다.

또한 총선에서는 정당의 이합집산을 통해 집권당의 세 불리기가 이루어져 여소야대일지언정 제1당의 지위를 놓치지 않아왔다. 다른 선진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년 이상된 정당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정치적 이념은 최소한 정립하여 나름대로의 독자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차별성이 모호하여 정치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각 정당은 정책 대결보다는 손쉽게 득표를 보장받는 전략인 지역감정에의 호소와 흑색선전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후

* 청주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eongju University) (zhkim@ju.ac.kr)

보자들도 이런저런 출마지역의 연줄을 동원하거나 지역개발 공약을 남발하고 이를 위한 예산확보 능력을 과시하는 등 선거 전략이 천편일률적이어서 차별성을 발견하기가 힘들었다. 평소에는 지역주의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선거 때만 되면 어느새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는 이유도 지역주의 전략의 파괴력을 입증해 준다.

또한 특정 정당의 ‘텃밭’인 곳에서는 ‘말뚝을 꽂아도 당선된다’는 말이 있듯이 당선이 보장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 정당의 지명도 높은 정치인이 선호하지만, ‘텃밭’이 아닌 곳에서는 당선되는 이변을 기대하기 어려워 후보자를 내지 않거나 지명도가 낮은 인물이 출마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지역정당이 의석을 석권하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거지역주의 현상을 정치지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다 소지역단위에서 검증하고 그 원인을 규명해 보자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사례지역으로 충북·전북·경북의 접경지역인 영동군, 무주군, 김천시를 선정하는데는 우선 소위 지역정당의 대결을 지리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는 상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선거지리학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세대균열(generation cleavage)과 계층균열(class cleavage)의 문제는 차후 연구대상으로 돌리고 여기서는 지역균열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연구 시기는 총선에서의 선거지역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한 13대 총선(1988)에서 17대 총선(2004)까지를 대상으로 하나 14대(1992)는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때에는 자민련이 민정당으로 합당하여 고찰대상인 지역정당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연구 목적은 소지역단위에서의 선거지역주의를 규명함과 동시에 상호 인접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지역적 이웃효과(neighborhood effect)를 확인하는 것이다. 나아가 지역민의 투표 행태를 가늠해 보기 위해 후보자의 득표율과 후보자의 사회·정치적 배경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지역당별 득표율 변화와 기타 지역당 대비 연고 지역당 득표비율을 통계나 지도로 표현하여 지역주의적 성향을 분석하였으며, 선형근사식(linear fitting)을 이용하여 후보별 득표율과 후보자의 속성(소속 정당, 출신 지역, 직업/정치 경

력, 학력, 연령)간의 관계에서 어떤 속성이 득표에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분석하였다. 투표 행태에 대해 설문조사할 때 응답자의 속마음을 알 길이 없지만 이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유권자가 실제 어떤 요인을 중시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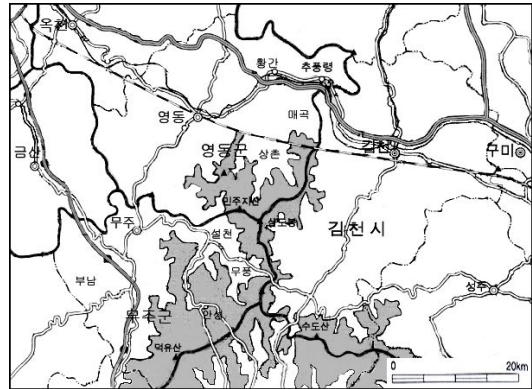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지역도

2. 선거지역주의에 대한 연구 동향

1) 연구 동향

선거지역주의는 보다 포괄적인 지역주의 개념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의 발생의 원인을 일차적으로 지역 고유의 민족, 언어, 종교적 균열, 역사적 조건 등 자신의 지역 정체성의 강도와 관련되는 요인에서, 또한 국가통합이 이루어진 후 중앙권력의 정책 결과로 인한 사회경제적 지역격차에서 찾고 있다(김재한, 2007).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다민족국가와 달리 문화적 균열이 없으므로 사회적 관계에 의한 지역감정, 지역간 경제격차, 정치적 동원 및 대립구조, 정책 정당으로서의 기능 미약, 지역주의에 편승한 정당 구조에서 지역주의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김만흠, 2002; Park, 2003).

선거지역주의를 이해하는데 지리적으로 중요한 개념은 이웃효과이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념, 계층구조, 정당구조가 안정되어 투표 행태에 있어 안정성을 보여 이웃효과와 특징이 잘 나타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정치경제적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지속적인 투표 행태의 안정성을 기대

하기 힘들 것이다.

Johnston 등(1990)은 이제까지의 선거지리학 연구 동향을 정리하면서 서구들을 사례로 지역균열, 진통과 변화의 균열, 계층균열 등 균열모델 연구가 선거지리학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역설하였고, Burnett & Taylor(1981)는 정치학자들이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해 특정 정당 득표 확률을 계산, 예상 투표와 실제 투표의 차이 분석, 지역효과 분석에 관심을 가지는데 비해 지리학자들은 주로 선거 통계나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집단적인 이웃효과 분석에 관심을 가진다고 파악하였다. 일례로 Johnston 등(2004)은 영국의 선거에서 지지정당과 투표자 특성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특히 지역 인구 중 사회경제적 약자 그룹에서 사회적으로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이웃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선거지역주의는 이해관계에 관련한 개념 이라기보다 현거주지(고향)나 연고지(고향)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인 일체감과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김광웅(1990)은 이웃효과를 지리적으로 인접한 개인들 사이에는 상호교류가 활발하여 유사한 정치관을 채택한다든지 혹은 후보자가 출신 지역에서 많은 지지를 얻는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남영(1997)은 선거지역주의를 확대하여 자기 고장에 대한 귀속의식과 애착심, 자기 고장 출신 정치인을 지지하는 성향, 자기 고장을 대표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 자기 고장에 대한 애착심과 특정 지역 혐오 성향 또는 내집단 선호와 외집단 배타, 국가차원 문제보다 지역차원 문제 중시 성향을 포괄하고 있다.

정치학계에서는 한때 지역주의 투표를 두고 비합리적인 지역감정인가 혹은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인가를 두고 크게 논란을 벌인 적이 있다.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논객들의 공통점은 지역갈등을 경제적 격차로 인한 갈등의 한 표현으로 이해하면서 영남의 패권적 지역주의와 호남의 저항적 지역주의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지역주의 투표 성향을 망국병 내지 부도덕한 후진성이라고 규정하면서 유권자의 투표 행태와 이를 이용하는 정치가를 양비론적으로 비판하고 있다(조기숙, 2000). 지역주의 투표라는 집합적 현상에서 이를 통해 개별 유권자가 누릴 효용이 불확실하다면 지역주의

투표의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는 논리도 있다(강원택, 2000).

지역주의 투표가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옹호하는 조기숙(2000; 2002)은 합리적 선택이란 주어진 대안을 평가하여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는 행위로서 정책투표만이 합리적이라는 도식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곤란하며 합리적 선택은 주어진 대안에서의 최선의 선택이므로 주어지지 않은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합리적이라고 비난하기는 어렵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유권자에 있지 않고 정치지도자의 출신 지역 챙기기, 정당의 정책 대안 부재, 현실정치의 권력배분이 각종 연줄에 역메이는 상황에서 유권자의 의식부족을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면서, 즉 정당의 정책적 지향이 뚜렷하지 않음으로 인해 당선가능성이 높은 패권정당에 후보자가 몰려들고 좋은 후보를 공천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2) 선거지역주의에 대한 용어의 정의

본 글에서 선거지역주의와 관련하여 사용한 용어가 앞서 기존연구의 검토과정에서 소개했듯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정당정체성(party identification) : 정당일체감(party support) 혹은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라고도 표현하며 이는 오랜 투표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일종의 당파심으로 다른 어떤 사회적 경제적 변수보다도 유력한 득표 예보자 역할을 한다. 김광웅(1990)은 그러나 한국의 경우 민주화 이후 갑작스럽게 나타난 특정 지역의 특정 정당 지지성향을 정당정체성이란 용어로 이해하기에는 난점이 있다고 하였으나, 연구 지역의 경우 1988년 이후 20년 가까이 이러한 성향을 거의 변함없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지역당(regional party, local party) : 특정 지역의 소위 텃밭에서 높은 득표율과 당선률을 나타내는 정당이라는 의미로 정의하였다. 혹자는 패권정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조기숙(2000)은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비폐권정당을 폐권정당이 존재하는 지역의 여타 정당이라고 표현하였는데 본 글에서는 토착 지역당과 기타 지역당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경우에 따라 우세한 정당에 대항하기 위해 혹은 여소야대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합당하여 신당을 결성하는 경우 합당당한 지역당은 소멸된 것으로 보았다. 그 예로 14대 자민련의 민자당 합당을 들 수 있다. 15대의 DJP 연합과 같이 지역당간의 정책적 공조 수준에 머무를 경우 각당이 독자적인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당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지역당의 구체적인 당명을 쓰지 않고 역대 총선의 결과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충청도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공화당(13대)과 자민련(15~17대)을 C당으로; 전라도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평민당(13대), 새정치국민회의(15대), 새천년민주당(16~17대)을 H당으로; 경상도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민정당(13대), 신한국당(15대), 한나라당(16~17대)을 K당이라고 약하여 사용하였다.

이웃효과 : 지역적으로 인접한 시군의 지역간에 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사회경제적으로 교류가 많아 이웃한 시군 지역의 정당정체성에 동조하는 경향이 자기 시군의 타지역당 평균득표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경우 (지역적) 이웃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이때 당연히 토착 지역당에 대한 충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3. 정당정체성과 선거지역주의

1) 지역당별 득표율로 본 지역의 정당정체성

(1) 도 및 시군 단위의 대지역주의

<표 1>은 역대 총선에서 지역별로 각 지역당의 득표율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기타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 외에 무효표도 총투표인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지역당의 득표율을 다 합쳐도 100%가 되지 않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본고에서 C당을 충북의 지역당이라고 규정하였으나 15대에서만 C당이 충북에서 제1당이 되었을 뿐 점차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13대에서 K당이, 16대에서 H당이 지역당보다 득표율이 높았고, 17대에서도 충청지역으로의 신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열린우리당이 50.5%의 득표율을 보여 충북은 전통적인 집권당 지지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 영동군은 충북에 속하면서도 K당에 대한 정당정체성이 확고하여 13대 총선 이후 매번 60%이상의 지지를 보내고 있다.²⁾ 영동군의 C당 지지율은 역대 총선을 거치면서 충북 전체보다도 급격하게 하락하여 지역당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어폐가 있을 정도이다. 17대에서 충북의 열린우리당 돌풍은 영동을 빗겨나 29.3% 지지를 얻었을 뿐이다.

전북은 16대까지 매번 H당에 대한 지지도가 60% 이상으로 정당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때 특징적인 것은 15대까지 K당이 25% 내외의 지지를 얻은 것인데 이는 집권당이 서해안 개발을 공약으로 내건 선거전략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으며, H당이 집권한 16대 이후 급격하게 줄고 있다. 17대에서는 H당에서 분당하여 그 세력의 대부분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이 H당을 대신하여 64.6%의 지지를 받고 있고 H당은 18.7% 득표에 그쳤다.

무주군은 전북 전체보다는 약화되었지만 마찬가지로 H당의 정당정체성을 보이고 있으며, 13대에서 K당 지지율이 특히 높고 16대에서 DJP연합으

표 1. 지역당별 득표율(도·군)

(단위: %)

지역	13대			15대			16대			17대			
	C당	H당	K당	C당	H당	K당	C당	H당	K당	C당	H당	K당	우리당
충북	33.3	1.4	43.7	39.4	8.9	31.5	29.5	31.3	30.6	9.2	1.0	32.6	50.5
영동군	23.9	0	44.5	10.3	9.7	65.2	13.9	13.5	63.5	4.2	1.8	64.6	29.3
전북	2.5	61.5	28.8	0.5	63.7	23.4	3.4	65.4	3.6	0.1	18.7	0.1	64.6
무주군	1.5	52.6	44.2	0	65.2	22.2	33.8	57.0	2.2	0	17.9	0	79.1
경북	16.0	0.9	51.0	20.6	1.6	34.9	14.0	14.7	52.5	0.6	0.4	54.6	25.8
김천시	8.1	4.1	61.3	4.7	1.2	43.8	10.3	13.8	73.7	0	0	62.2	13.0

로 인해 C당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이 특이하다. 17대에서는 열린우리당이 79.1%를 득표하여 H당을 압도하였다.

15대 총선에서 C당의 약진으로 K당의 지지율이 다소 낮아진 때를 제외한다면, 경북의 경우 13대부터 열린우리당이 지역주의 타파를 구호로 내건 17대에 이르기까지 K당이 50%를 상회하는 득표율을 보이고 있고, 김천시는 항상 이보다 높은 60%~70%대의 지지로 K당에 대한 보다 확고한 정당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17대에서 열린우리당의 전국적인 열풍에도 불구하고 경북에서 25.8%, 김천시에서 13.0%를 득표하는데 그쳐 경북지역의 지역당에 대한 충성도가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타 지역당 대비 토착 지역당의 지지비율로 나타낸 <표 2>를 보면 토착 지역당에 대한 충성도를 알아볼 수 있다. 충북의 경우 최근 총선으로 올수록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영동군은 더 급격하게 줄어 C당에 대한 충성도를 거론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 전북의 경우 H당에 대한 충성도가 여당이 된 16대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무주군의 경우 대체적으로 그보다는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북이 K당에 대해 충성도를 보이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자민련이 재차 창당한 15대와 야당시절인 16대에 다소 약화되었다. 김천시는 특이하게도 16대까지 항상 경북 평균보다도 높은 K당 충성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무주군의 그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17대에서는 무주군이나 김천시에서 세에서 밀린 기타 지역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가운데 열린우리당 후보와 토착지

역당 후보의 대결로 압축되었기 때문에 충성도를 거론하기 어렵겠지만, <표 1>에서 보듯 열린우리당의 등장으로 인해 무주군에서는 H당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한 반면 김천시에서는 여전히 높은 K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2) 읍면 단위의 지역적 이웃효과(neighborhood effect)

토착 지역당을 비롯한 기타 지역당의 득표율을 읍면별로 표시한 것이 <그림 2>이다. 이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접경 면들 간에 지역적 이웃효과가 있는지의 여부이다. 여기서 주안점은 각 읍면의 토착 지역당이 아닌 기타 지역당의 득표율을 각 시군 기타 지역당의 평균 득표율과 비교하여 더 많은 득표율을 나타낸 곳이 어디인지를 확인하여 지역적 인접성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다만 17대는 무주군과 김천시에서 타지역당이 출마하지 않아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영동군에서는 13대의 경우 H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아 K당의 지지율만을 대상으로 보면, 영동군의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에서 평균 이상을 나타내었고, 15대와 16대에서는 북동부와 서남부에서 H당, 영동읍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에서 K당 지지율이 평균을 상회하였다. 17대에서는 영동읍 주변에서 K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은 변함이 없지만 동부에서 남부에 걸쳐 H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반적으로 무주군과 김천시에 접경하고 있는 면이라 하더라도 남부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H당이나 K당의 지지율이 특히 높지는 않게 나타나 지역적 이웃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무주군에서는 13대에 무주읍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에서 K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서부 지역에서 H당 지지가 나타나고 있다. 15대에서는 C당이 후보자를 내지 않은 가운데 무주읍과 그 남부의 면 지역, 동부 무풍면에서 K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6대에서는 서부 부남면과 동부 무풍면에서 C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부 부남면이 충남과 접경함으로써 지속적으로 C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제외한다면 영동군과 김천시에 접경한 읍면의 지역적 이웃효과는 없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김천시에서는 13대에 북서부와 북동부 면에서 C

표 2. 타 지역당 대비 토착 지역당 지지비율(도·군)
(단위: %)

총선시기 지역	13대	15대	16대	17대
충북	0.74	0.98	0.48	0.27
영동군	0.54	0.14	0.18	0.06
전북	1.96	2.67	9.34	93.5
무주군	1.15	2.94	1.58	C당·K당 불출마
경북	3.02	1.57	1.83	54.6
김천시	5.02	7.42	3.06	C당·H당 불출마

* 충북과 영동의 적용 예: C당 득표율/H당과 K당 득표율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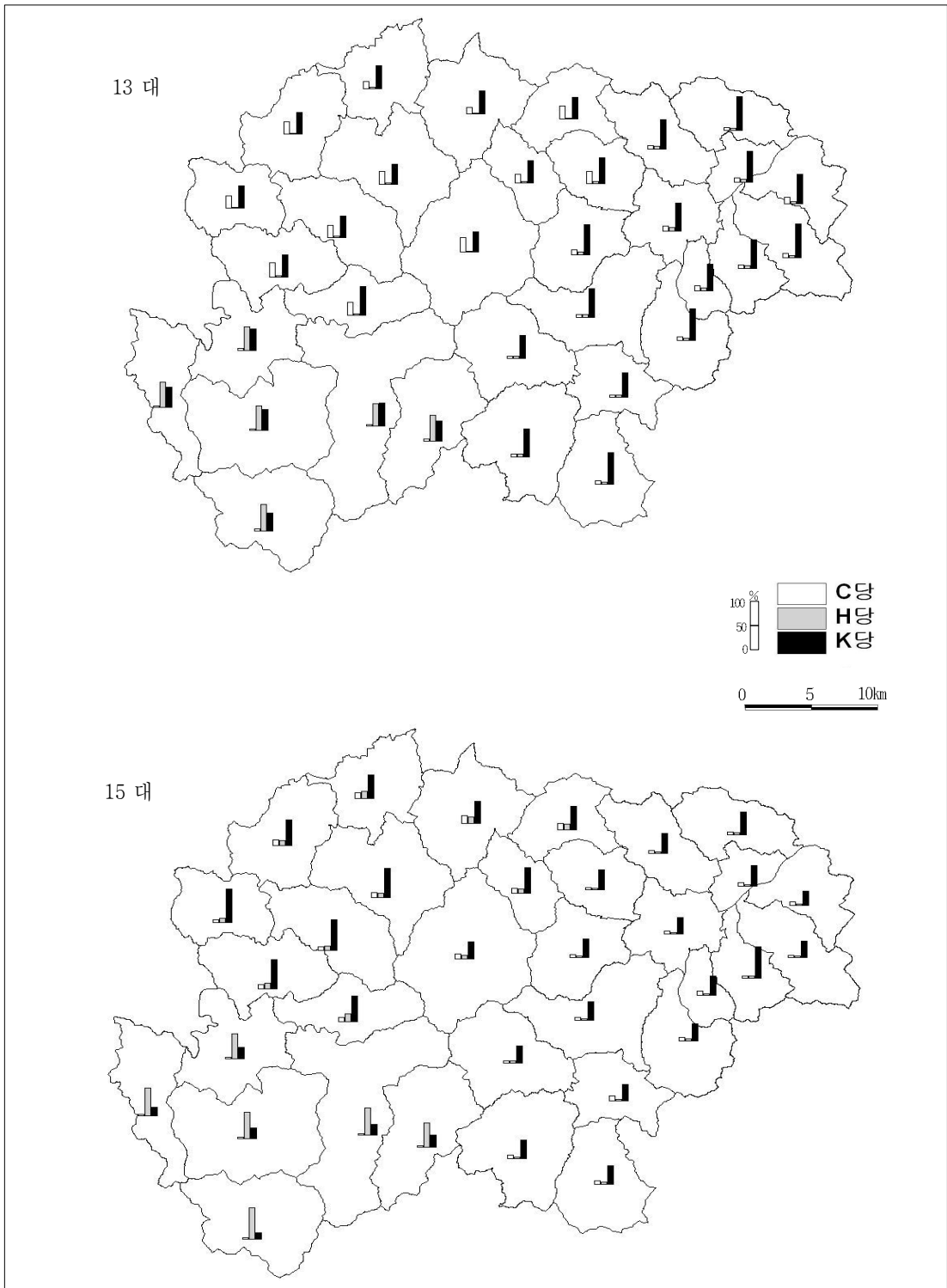


그림 2-1. 지역당별 득표율(읍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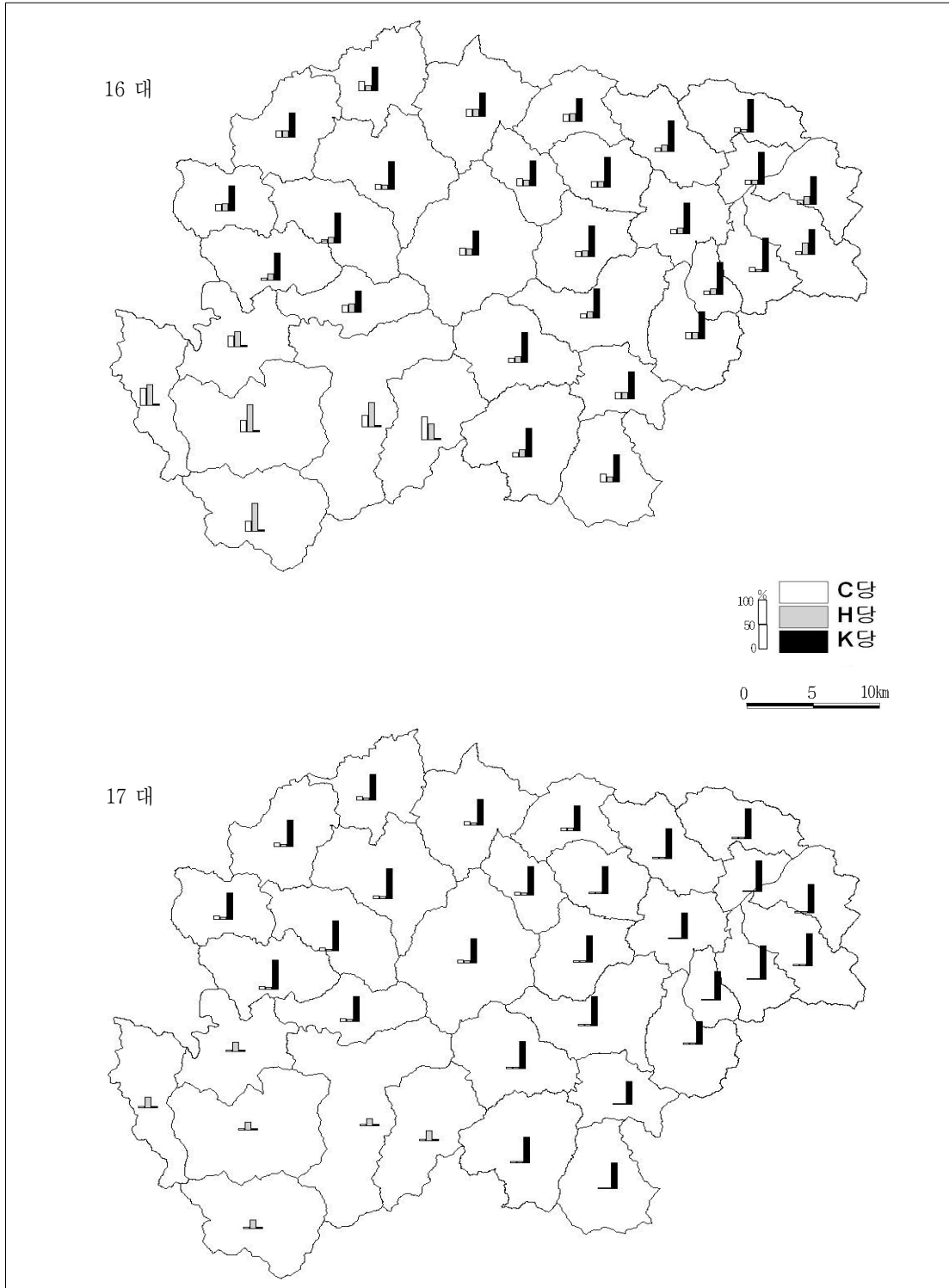


그림 2-2. 지역당별 득표율(읍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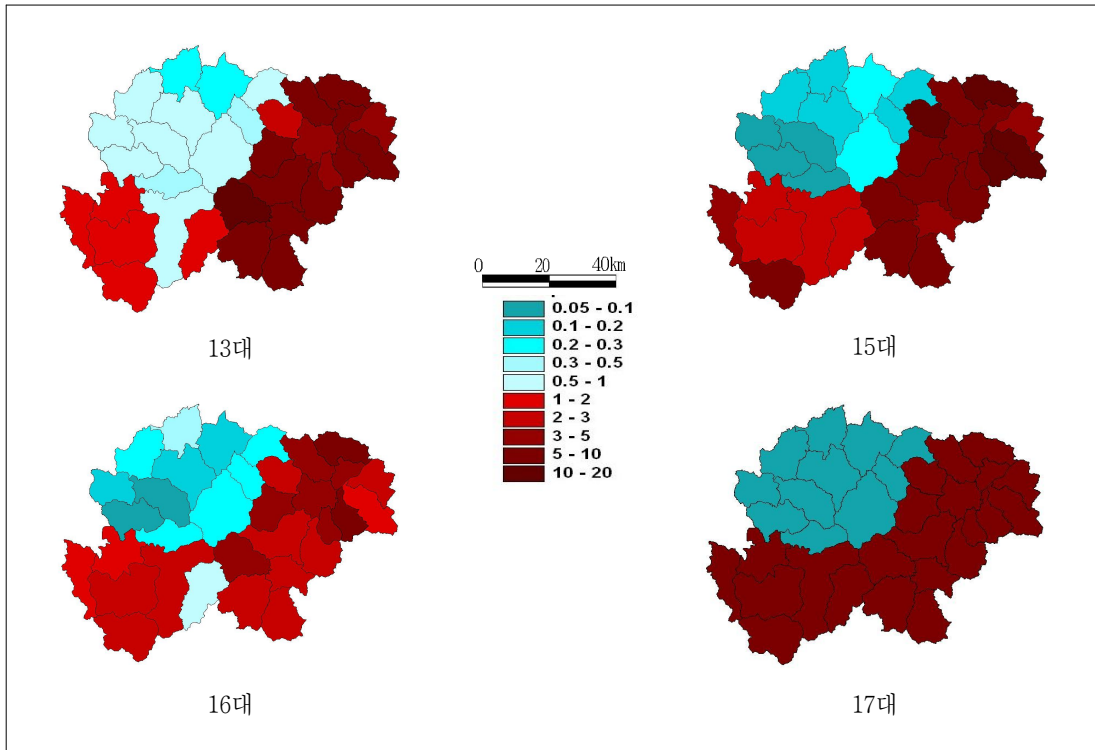


그림 3. 지역당에 대한 충성도(읍면)

당 지지율이, 김천시와 남부 인접 면에서 H당 지지율이 각각 상대적으로 높았다. 15대에서도 서부와 동부 지역 일부 면에서 C당 지지율, 남부면에서는 C당 혹은 H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6대에서는 북서부와 동남부의 면에서 C당 지지율이 높았고, 동북부에서는 H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로 볼 때 역대 총선에서 김천시는 동북부의 봉산면과 대항면 등 아주 좁은 범위에서만 지역적 이웃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은 읍면별로 타 지역당 대비 토착 지역당 지지율을 나타낸 것으로 토착 지역당에 대한 충성도로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숫자가 클수록 충성도가 높고 작을수록 충성도가 낮아진다.

영동군의 경우, 역대 총선을 거치면서 지역당인 C당에 대한 충성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13대에는 북부지역의 충성도가 낮았으나, 15대 이후에는 점차 서남부지역에서 더욱 충성도가 낮아지고 있다. C당을 지역당이라고 규정했지만 영동군의 정당정체성은 <그림 2>에서 보듯이 명백하게 K당이다. 17대에서는 C당에 대한 충성도가 극단적

으로 낮아졌다.

무주군은 역대 총선에서 서부 지역에서 지역당인 H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동부 지역에서 낮은 특징을 보인다. 반면 김천시는 역대 총선에서 무주군의 H당 충성도보다 강력한 K당에 대한 충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김천시의 북부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충성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 지역적 정당정체성 형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동군은 충북에 속하면서 서도 K당에 대한 정당정체성이 확고하고, 무주군은 전북 전체보다는 약화되었지만 H당의 정당정체성을 나타내며, 김천시의 경우 K당 정당정체성이 뚜렷하여 항상 경북 전체 평균득표율보다 높은 지지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해석을 요하는 부분은 영동군이 왜 지역당인 C당이 아니고 K당의 정체성을 가지는 가이다. 과거 역사적으로 영동군의 북동부 지역이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행정적으로 이관된 역사적 배경³⁾에서 K당 정체성의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오래전 역사가 현재의 투표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기는 힘들다. 만약 그렇다면 영동군 동북부 면들에서 다른 면보다 K당에 대한 충성도가 더 높아야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 이에 비해 방언이나 풍습 등 문화적 요소는 경북 북부지역과 유사성을 보이므로 심리적인 차원에서 K당을 지지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요인으로 영동-김천간 교통의 편리성을 꼽을 수 있다. 험준한 백두대간이 3개 시군의 행정 경계를 이루고 있지만 다소 기복이 낮은 영동-김천간 추풍령이 고래로 주요 교통로를 이루고 있어 양 지역간의 사회경제적인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투표 성향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추측해 볼 수 있으나 왜 일반적으로 영동군만 K당 지향적인가를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우선 영동을 기점으로 교통 소요 시간을 보면 김천까지 1시간 넘게 걸리지만 무주까지는 그 절반이면 갈 수 있으므로 지리적 인접성을 논하기 어렵고, 실제 김천보다 무주나 대전 방향의 교통편이 훨씬 더 많다.⁴⁾ 농산물 판매나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통해 중심지 관계를 살펴보다도 영동군이 김천과 의미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김천은 영동과의 관계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⁵⁾ 김천시민에 대한 호감도나 경상도와와의 혼인권 등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⁶⁾

이같이 역사적인 또한 지리적인 요인이 영동의 K당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미흡하다면 방언이나 풍습의 유사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보지만 별도의 조사가 뒷받침되지 않아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 충남을 주축으로 하는 C당에 대한 충북의 불만족과 소외감이 영동에서 더욱 강하여 K당이 대체 정당으로 등장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무주군은 앞서 지적한대로 전북 평균보다는 H당에 대한 정체성이 다소 떨어지는데, 무주군의 연혁에서 경상도나 충청도 지역이 편입됨으로써 문화적인 혼재 양상을 보이고 있고⁷⁾, 또한 경제활동에 있어 전주보다도 집권성이 양호한 대전이 오히려 상위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고, 충남에 인접한 무주군 서부 지역에서 C당에 대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무주군이

집권정당의 지역개발 공약에 어느 정도 호응하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김천시는 무주군과 달리 K당의 최외곽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충성도를 보이고 있는데, 사회경제적으로 인접한 영동이나 무주와의 교류가 극히 제한적이고 배타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성향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영동, 무주, 김천이 충북·전북·경북의 접경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지역주의를 보여주는 표본지역으로 남아있기 보다는 지역민들의 상호교류 확대로 지역의 발전을 기하자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3시군이 접경하는 삼도봉에서 매년 지역감정 해소를 기원하는 행사를 가지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 연구기간에서 벗어나기는 하지만 지역균형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업도시'에 무주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선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무주군은 김천, 영동 등 인근 시군의 협조를 얻기 위해 개발이익을 공유하기로 협약을 맺은 사실은 3시군의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내일신문 2005.5.18). 다른 한편으로 한 토론회에서 신행정수도는 수도권과 충청권 연담화 가능성을 감안할 때, 공주·연기 지구보다 더 원거리 위치가 바람직하며 지역갈등 극복의 관점에서 충청·전라·경상도 접경지역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한국경제연구원, 2005).

4. 득표율과 후보자 특징과의 관계

1) 중앙선관위의 설문조사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두고 언론매체나 전문조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서도 사후에 유권자 의식조사를 수행한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하는 기준을 보면 역대 총선 때마다 그 기준이 약간씩 다르다. 후보자의 인물, 소속 정당, 공약(정책)은 항상 거론되지만 경우에 따라 개인 연고(학연, 혈연)나 지역 연고 같은 기준들이 첨가되기도 한다. 15대에서 17대까지 유권자들은 인물을 가장 중시하고 소속 정당과 정책(공약)은

때로 순서가 뒤바뀌기도 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물은 후보자의 능력이나 정치 경력 혹은 주위의 평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의 개인 연고나 출신 지역과 같은 지역 연고는 설문조사에서 항상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다고 조사되고 있다.⁸⁾ 또한 중앙선관위(2004) 조사 결과 고령화와 저소득의 특징을 지닌 농촌지역일수록 인물(능력) 응답이 높고 소속 정당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갤럽(2000)에 따르면 설문을 보다 세분화하여 조사한 결과, 출마후보 차이(능력이나 됨됨이) ‘다르지 않다’가 37.2%로 ‘다르다’ 30.2%보다 많아 후보자 자질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고, 또한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관심도와 신뢰도도 ‘그다지’ 혹은 ‘전혀 없다’가 70% 내외에 달하여 중앙선관위 조사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이한 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유권자가 설문지 혹은 사회에서 비난하는 연줄 중심의 투표 성향 속내를 감춘 결과 때문은 아닌지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김광웅(1996) 등 선거 행태를 연구하는 여러 정치학자들은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접촉 빈도나 친밀도가 높을수록 상대방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쉬운 연고주의 연줄망이 형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사회에 만연한 전통적인 귀족주의적이고도 폐쇄적인 관계망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본 연구 지역과 같은 농촌지역에서 연줄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설문 결과가 실제 투표행위에 반영이 되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고 또한 지나친 연줄 강조가 주장에 머무를 수 있다는 생각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실제 유권자의 투표행위라 할 수 있는 후보자의 득표율이 후보자의 선택 기준별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결정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후보자 선택 기준

선택 기준으로 본고에서는 후보의 소속 정당, 출신 지역, 직업, 학력, 연령만을 주요 변수로 다루었는데 이는 중앙선관위 역대 총선의 자료에서 파악한 자료의 한계에 기인한다. 물론 후보자의 보유

재산이나 선거운동 지출 비용에 관한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있다면 중요한 변수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후보자의 조직력, 도덕성, 추진력 등과 같은 주관적인 요소, 또한 선거 당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함께 고려될 때 실제 후보자별 득표율과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제외시키기로 한다. <표 3>은 역대 총선에서 통합 선거구별로 후보자별 득표율과 후보자의 변수를 일정 기준에 의해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일정 기준이라 함은 도표의 범례에 있는 바와 같이 각 변수별로 득표에 유리한 순서대로 유형을 나누고 각 후보자의 순위를 부여한 것이다.

특정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기타 정당, 무소속 후보자보다 높은 득표율을 얻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는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역 폐권정당에 자질이 높은 인사가 집중되는 것과 무관치 않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주의적 성향이 매우 강하다. 또한 통합 선거구에서 자신의 출신 지역 투표구에서 입후보한 후보자일수록 유권자의 일종의 소지역주의에 영향을 받아 타 투표구 출신 후보자에 비해 득표율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는 직업으로 전현직 국회의원, 당선 경험이 없는 정당인, 기타 직업을 나누었는데, 이는 선거 경험이 있고 인지도와 자금력을 갖춘 국회의원이 다른 후보보다 높은 득표율을 얻어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조기숙, 2000). 실제로 무주군과 김천시에서는 4번의 총선에서 특정한 전현직 국회의원이 3선을 기록하고 있다. 후보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득표에 유리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실제 거의 모든 후보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 후보자간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택 기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연령 변수를 포함시키기는 하였지만 연구 지역과 같은 농촌지역에서 어떤 연령층을 선호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정치적 경험을 논한다면 고령 후보일수록 선호할 것이라는 주장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이나 40대 이하가 그 이상보다 활동성이 있어 득표에 유리할 것이라 가정하여 순위를 작성하였다.

결론적으로 각 변수별로 유리한 조건일수록 득

표 3. 후보자별 특성과 득표율 (<http://www.nec.go.kr> 역대 선거자료 활용)

지역	역대 총선	후보자	득표율 %	소속 정당	출신 지역	직업	학력	연령	
영 동 군	13대	A	44.5	1	2	1	1	2	
		B	29.8	2	1	3	3	3	
		C	23.9	2	2	3	2	2	
	15대	A	65.2	1	1	3	1	2	
		B	9.7	2	2	2	3	3	
		C	5.3	2	1	3	2	3	
		D	10.3	2	2	3	2	2	
		E	0.7	2	2	2	3	2	2
	16대	F	5.2	3	1	3	3	2	2
		A	63.5	1	1	3	2	2	2
		B	13.5	2	2	2	2	2	3
		C	13.9	2	2	2	2	2	3
	17대	D	6.9	3	2	1	2	2	3
		A	63.2	1	1	1	2	1	1
		B	1.8	2	2	2	2	2	3
		C	28.6	2	2	2	2	2	3
		D	4.1	2	1	2	1	2	
무 주 군	13대	A	44.2	2	2	1	2	2	
		B	52.2	1	2	2	1	1	
		C	1.5	2	2	3	2	3	
	15대	A	28.1	2	2	1	2	2	
		B	62.4	1	2	2	2	1	
		C	2.5	2	3	3	3	2	
		D	2.8	3	2	3	1	1	
	16대	A	2.2	2	2	2	3	1	
		B	56.9	1	2	1	1	1	
		C	33.8	2	1	1	2	3	
		D	5.3	2	1	3	2	1	
17대	A	17.3	1	2	2	1	2		
	B	79.2	2	2	1	1	2		
김 천 시	13대	A	63.0	1	1	3	1	2	
		B	24.4	2	1	3	2	2	
		C	3.4	2	3	3	2	2	
		D	7.8	2	1	2	2	1	
	15대	A	43.8	1	1	2	1	1	
		B	1.2	2	1	3	2	2	
		C	2.0	2	1	2	3	2	
		D	4.5	2	3	3	2	2	
		E	0.4	2	3	3	2	2	
		F	5.1	3	1	3	2	1	
		G	0.6	3	1	3	2	1	
	16대	H	1.4	3	1	3	2	1	
		I	37.8	3	1	3	2	2	
		A	73.7	1	1	1	1	1	
		B	13.8	2	1	2	1	1	
	17대	C	10.3	2	1	2	1	3	
		A	61.1	1	1	1	1	1	
		B	12.8	2	1	2	1	1	
C		24.3	3	1	2	1	1		
범 례				1: 전통지지정당 2: 기타 정당 3: 무소속	1: 자기 투표구 2: 기타 투표구 3: 기타 선거구	1: 국회의원 2: 정당인 3: 기타직업	1: 대학원졸 2: 대졸 3: 대퇴이하	1: 40대 이하 2: 50대 3: 60대 이상	

총선으로 본 지역주의

표율이 높다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순위와 역 비례로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한다. 즉, 순위가 1이면 점수는 3, 순위가 3이면 점수는 1로 취급하였다. 각 변수별로 3 유형만을 제시한 것은 다음에 제시할 계산식 모형에서 유형의 수가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각 변수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역대 총선마다 유권자의 선택 기준 평가가 매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기간을 통틀어 투표 행태가 불변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 이유는 13대에서 17대까지 농촌지역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심대한 변화가 있다는 보고가 아직 없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총선시기별로 본다면 3개 시군의 후보자 수가 적어 오류가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 수학적 모형으로 본 선택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소속 정당, 출신 지역, 직업, 학력, 연령을 통합

하여 독립변수로, 득표율을 종속변수로 보아 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선형근사식(Linear Fitting)을 활용하였다. 선형근사식(혹은 선형적합)이란 근사식(혹은 적합)을 구하였을 때 에러가 최소화되는 직선식을 의미한다(Kuo, 1972).

$$F = mX + b$$

여기서 F, X, m, b는 각각 최적선형근사식에 의해 산출된 값, 입력값, 기울기 그리고 y축 절편이다. 에러는 다음의 평균자승에러 mse(mean square error)가 최소가 되도록 취한다.

$$MSE = \frac{1}{n} \sum_{i=0}^{n-1} (f_i - y_i)^2$$

여기서 f는 최적선형적합에 의해 산출한 값, y는 입력값, n은 자료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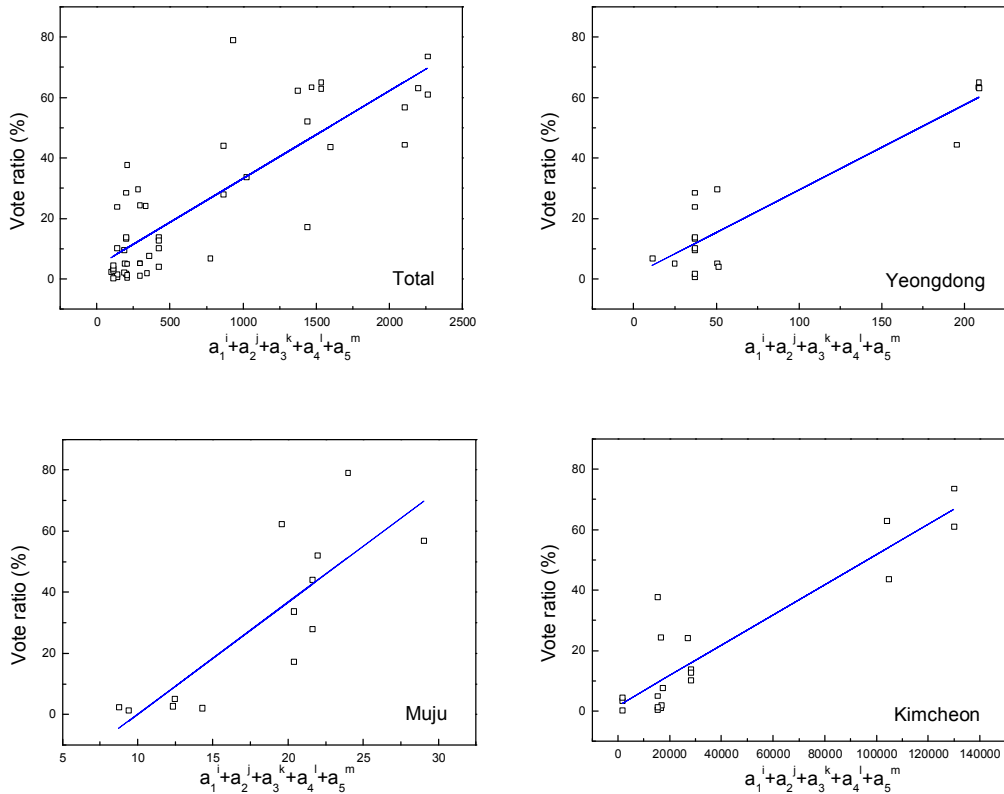


그림 4. 후보자의 특성 요인과 득표율의 선형적합

입력값 X의 산출에는 종속변수별로 지수가중치를 주는 방법과 단순가중치를 주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X = a_1^i + a_2^j + a_3^k + a_4^l + a_5^m$$

$$X = Aa_1 + Ba_2 + Ca_3 + Da_4 + Ea_5$$

여기서 a_1, a_2, a_3, a_4, a_5 는 각각 당정체성, 출신 지역, 직업, 학력, 연령을 순위가 아닌 짐수화한 값이며, i, j, k, l, m 혹은 A, B, C, D, E 는 선거에서 득표를 위한 당정체성, 출신 지역, 직업, 학력, 연령의 중요도를 의미하며 그 값이 클수록 그 항목의 중요도가 커진다.

<그림 4>는 지수가중치를 이용하여 지역별로 구한 선형근사식을 나타내는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가 거칠지만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 그 자체만으로는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계산을 통해 얻은 독립변수별 지수가중치의 크기이다. 지역간에 특정 독립변수 가중치의 크기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지역내에서의 가중치 크기를 비교해 각 후보자 요인별 중요도를 판별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수치해석상 평균자승에러가 작을수록 의미가 커진다.

이로 볼 때 연구 지역 전체에서 후보자의 소속

표 4. 후보자 득표요인의 중요도 (지수가중치)

기준 지역	소속정당 i	출신지역 j	직업 k	학력 l	연령 m	mse
전체	6.5	4.75	6	4	0.25	177
영동	4.75	2.75	0.25	0.25	0.25	77
무주	1.75	0.25	2.25	1.5	1.25	209
김천	10.25	8.75	9.25	8.5	0.25	91

(단순가중치)

기준 지역	소속정당 A	출신지역 B	직업 C	학력 D	연령 E	mse
전체	47	15	18	11	5	246
영동	50.1	21	6.1	1.1	5.1	133
무주	28	1.1	51	26	12	208
김천	51	23.1	1.1	35	6.1	210

정당, 직업(정치 경력), 출신 지역, 학력, 연령의 순서대로 중요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의 정당정체성이나 출신 지역 등 지역주의적인 요인이 득표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후보자 개인의 인적 사항은 부차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인물을 정당보다도 더 중시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최소한 농촌지역인 연구 지역 내에서는 정반대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득표요인별 중요도가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영동에서는 소속 정당과 출신 지역이 압도적으로 중요한데 비해, 무주에서는 직업과 소속 정당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며, 김천에서는 소속 정당과 직업 그리고 출신 지역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가중치를 비교한 <표 4> 하단을 보아도 지수가중치의 결과와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적용한 수학적 모형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라면 특정 지역의 총선 후보자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할 때 다음 총선시 입후보자의 인적 특성만으로도 대략적인 득표율을 계산할 수 있어 통합 선거구 전체에서의 득표율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좀 더 다양한 독립변수를 포함시키면 그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소선거구제로의 변화로 13대 총선 이후 전국적인 투표 행태가 종래 여촌야도에서 지역주의적인 양상으로, 정치학자들에 따르면 지역균열 양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주의를 두고 해석이 제각각이다. 유권자들이 아무런 기대이익 없이 특정 정당 혹은 소위 지역당을 지지하는 지역주의적 투표 행태를 여러 각도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지역 감정을 선거에 이용하여 부정적인 지역균열을 확대재생산해 온 정당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유권자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당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지역주의적 투표 행태를 보였다는 시각도 있다. 본 연구는 후자의 시각에 더 비중을 두면서 정치지리학적 관점에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충북·전북·경북의 접경지역인 영동군, 무주군, 김천시를 대상으로 서로 접경

하는 특성으로 인한 지역적 정당정체성의 변화를 검토하고, 각 후보자 선택 기준의 중요도를 비교하여 투표 행태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소위 지역당들의 집경지역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중시하여 연구 지역을 선택하였을 뿐 연구결과가 한국의 정치적 지역주의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시군 단위로 볼 때, 세 시군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지역당에 대한 정체성이 획일적이지 않다. 영동군은 충북이 지지정당의 경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것과는 달리 지역당인 C당을 외면하고 K당의 정당정체성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그 배경으로 경북 북부지역과의 문화적 유사성이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무주군은 전북 전체보다 H당에 대한 충성도가 크게 약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해, 김천시는 K당에 대한 충성도가 경북 전체보다 강하다. 무주군은 인접한 타도의 시군의 영향을 받아 문화적으로 혼재되어서, 김천시는 인접 시군과의 폐쇄적 관계에서 지역당에 대한 충성도의 차이를 보인다고 사료된다.

② 읍면 단위로 지역적 인접성에 의한 이웃효과를 살펴본 결과, 영동군의 경우 전면적인 K당 지지를 보였으나 읍면 단위에서는 경북과 문화역사적으로 관계가 깊은 동북부에서 의외로 오히려 K당 지지가 약하였다. 무주의 서부 지역에서 특히 C당 지지가 무주군 평균보다 높았고, 김천시의 경우 동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H당에 대한 지지가 김천시 평균을 상회하였을 뿐 지역적 이웃효과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는 않았다.

③ 후보자의 정치적, 사회적 특성이 유권자의 투표행위라 할 수 있는 득표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수학적 모형을 통해 살펴 본 결과, 인물/능력과 공약/정책을 중시하고 정당이나 출신 지역을 덜 중시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자 설문조사와 다르게 유권자가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나 출신 지역 등 지역적인 요소를 중시하고, 인물과 관계되는 요소로서는 정치적 경력을 중시할 뿐 학력과 연령 등에 대해서는 거의 의미를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총선시 나타나는 실존하는 정치적 지역주의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지역

적인 교류가 고착된 지역주의의 약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발견하였다. 한편, 지난 17대 총선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라는 개혁 표방 정당이 출현하여 3김 시대의 고착화된 지역주의를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정책정당 구조로 변화하는 초기의 모습인지, 아니면 권력쟁취를 위한 정당의 이합집산 과정에서 다시 지역주의가 부활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註

- 1) 조기숙(2000)은 정보통신 수단의 발달과 근대화 과정에서 농촌인구가 도시로 대거 이동함으로써 여촌야도 현상이 사라졌다고 진단하기도 한다.
- 2) 13대의 경우 통일민주당의 29.8%를 합산하면 K당에 대한 지지율은 73.5%에 달한다.
- 3) 고려 현종 9년 영동현과 청산현은 경상도 상주목의 직속 군현; 태종 13년(1413) 영동현, 황간현, 청산현을 충청도로 이속; 1913년 영동군에 황간군 일원을 통합(영동군지, 1991, 521)
- 4) ‘청주대 지리교육과 1999 춘계답사보고서’에 따르면, 영동에서 김천으로 연결되는 직행버스 편은 하루 8편에 불과한데 비해, 대전으로 31편, 무주로 27편이 개설되어 있다. 반대로 김천에서 영동 버스편은 하루 8편인데 비해 대전(17편)이나 대구(10~15분간격)로의 교통편이 더 많고, 무주로의 교통편도 8편이 있다.
- 5) 중심지 연계 설문조사

지역	농산물 판매	전자제품	병원	극장
영동	영동 68, 무주 2, 김천 5, 대전 4 (n=86)	영동 66, 무주 1, 김천 5, 대전 16 (n=91)	영동 65, 무주 1, 김천 2, 대전 25 (n=99)	영동 60, 김천 2, 대전 17 (n=81)
무주	무주 79, 영동 3, 김천 1, 대전 7, 전주 3 (n=97)	무주 73, 영동 2, 대전 33, 전주 16 (n=135)	무주 71, 영동 4, 대전 42, 전주 34 (n=165)	무주 67, 대전 24, 전주 34 (n=104)
김천	김천 79, 대구 7 (n=90)	김천 87, 대구 13 (n=110)	김천 86, 대구 26 (n=129)	김천 83, 대구 9 (n=95)

- 주: 청주대 지리교육과 1999 춘계답사보고서
- 6) 영동군(n=64) 응답자 중 경상도 배우자 8, 전라도 8명; 무주군(n=67)은 경상도 12명, 충청도 9명으로 지역색을 그다지 가리지 않는데 비해; 김천시(n=85)는 충청 5명, 전라 2명으로 혼인권에 관한 한 상당히 폐쇄적임을 알 수 있다. 다른 지역민에 대한 평가들

보면, 영동 응답자는 무주와 김천 주민에 대해 각각 78%, 71%가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무주 응답자는 영동과 김천 주민에 대해 86%, 67%, 김천 응답자는 영동과 무주 주민에 대해 90%, 58%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하여 영호남간의 지역감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청주대 지리교육과 1999 춘계답사보고서)

7) 태종 14년(1414) 경상도 무풍현을 무주현에 이속; 현종 15년(1674) 직상산 사고 설치와 무주도호부 승격으로 충청도 금산현에 속해 있던 안성현을 편입; 1914년 금산현 부남면을 무주군에 편입. 나제통문 동쪽 무풍면은 과거 신라의 변경지로서 경상도 사투리를 쓰며 김천이나 거창과 사회경제적으로 교류 활발; 무주군 남부의 안성과 서부의 부남은 진주와 교류. 무주군지, 1990, 262; 362-3

8) 15대에는 각 항목 5점을 만점 기준으로, 인물 3.22, 정책/공약 2.83, 정당 2.76, 지역 연고 2.43, 개인 연고 1.68; 16대에는 인물/능력 60.0%, 정책/공약 15.8%, 소속 정당 7.0%; 17대에는 인물/능력 41.7%, 소속 정당 24.2%, 정책/공약 15.2%, 정치 경력 6.6%, 주위 평가 6.4%, 개인 연고 0.8%, 출신 지역 0.7%, 기타 4.5%로 조사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 유권자의식조사(1996, 2004); 한국갤럽(2000).

文獻

강원택, 2000, 지역주의 투표와 합리적 선택: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34(2), 51-67.

권용우 · 이범준 · 송일성, 1989, 수도권 지역주민의 지도자 선호요인과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광웅(편), 1990, 한국의 선거정치학, 나남.

김광웅, 1992, 우리 동네 선거이야기, 나라 선거이야기, 고쳐야 할 선거이야기, 도서출판 예음.

김광웅 · 이갑윤, 1996, 정당 · 선거 · 여론, 한울.

김만흠, 2002, 전환기의 한국정치와 지역주의, 경제와 사회, 56, 85-109.

김재한, 2007, 비교정치적 관점에서 본 지역주의, 청대학술논집, 9, 75-104.

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무주군지, 무주군.

박상훈, 1999, 한국 지역정당체제의 합리적 기초에 관한 연구: 합리적 선택이론을 통해서 본 민주화 이행기 유권자 투표행위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영동군지편찬위원회, 1991, 영동군지, 영동군.

이남영(편), 1993, 한국의 선거 I, 나남.

이남영, 1997, 한국 선거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정치학회편, 법문사.

조기숙, 1996, 합리적 선택: 한국의 선거와 유권자, 한울 아카데미.

조기숙, 2000, 지역주의 선거와 합리적 유권자, 나남출판.

조기숙, 2002, 16대 총선과 낙선운동,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93집, 집문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6,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유권자의식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유권자의식조사.

청주대학교 지리교육과, 1999, 춘계정기답사보고서 (미발간).

한국갤럽, 2000, 제16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행태.

한국경제연구원, 2005.1.18, 신행정수도의 대안을 찾아서 -진정한 국가발전을 위한 제안-, 제6회 KERI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Burnett, A.D. & P.J. Taylor(ed.), 1981, *Political Studies from Spatial Perspectives*, John Wiley & Sons, New York.

Johnston, R., et al, 2004, Party support and the neighborhood effect: spatial polarisation of the British electorate, 1991-2001, *Political Geography*, 23(4), 367-402.

Johnston, R.J., Shelley, F.M. & P.J. Taylor(ed.), 1990, *Developments in Electoral Geography*,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Kuo, Shan S. 1972, *Computer application of numerical methods*, Addison-Wesley, 252-258.

Park, Bae-Gyoon, 2003, Territorialized party politics and the politics of local economic development: State-led industrialization and political regionalism in South Korea, *Political Geography*, 22(8), 811-839.

http://www.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 선거자료.

(집수 : 2007. 7. 15, 채택 : 2007. 8. 5)